

제주도 잉여 전력, 육지로 보낸다



▲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와 금동리 앞바다에 위치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사진=탐라해상풍력발전

정부가 제주도에 남아도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육지로 전송하기로 했다. 남는 전력 때문에 발전기를 강제로 멈춰야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다.

3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에서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을 포함한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분산 에너지는 중소 규모의 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자가 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전력 수요가 필요한 곳에서 생산돼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현재 '카본 프리 아일랜드(탄소없는 섬) 2030' 정책을 추진 중인 제주도에는 재생에너지 전력 과잉 생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출력 비중은 2016년 9.3%에서 지난해 16.2%로 높아졌다. 문제는 풍력발전 등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수요보다 전력이 과잉 공급되다 보니 강제로 발전기를 멈춰 세워야 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력이 부족해도 정전이 발생하지만, 과잉 공급돼도 전력 계통에 과부하가 일어나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제주-육지간 해저케이블(HVDC·고압직류송전) 2개 라인을 통해 제주도 내 잉여전력을 육지로 보내기로 했다. 기존에는 육지에서 제주도로만 전력을 보냈으나 역전송 능력을 확보해 반대로 송전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도내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나아가 2022년 말 제주-육지간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실시간 양방향 전송이 가능한 세 번째 해저케이블이 준공하면 도내 재생에너지 수용량은 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만 서울' 32년 만에 깨졌다

서울 인구가 32년 만에 1,0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3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관내 내국인 주민등록인구(행정안전부 통계)와 외국인 등록인구(법무부 통계)를 더한 총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991만1,08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내국인이 966만8,465명, 외국인이 24만2,623명이다. 1년 전보다는 9만9,895명(-1.00%)이 줄었다.

서울시 인구는 지난 1988년 처음 1,000만명을 넘은 이래로 1990년대 초반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그 후 1992년 1,09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감소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인구가 줄어들면서 전체 인구 수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1년 사이 서울시 내국인 인구가 0.62%(6만642명) 감소한 데 비해 외국인 인구는 13.93%(3만9,253명) 줄었다. 국적별로는 중국(한국계 포함) 국적 외국인이 전년 대비 3만2,070명 급감했다.

연령별 인구는 25~29세가 85만8,648명으로 가장



▲ 서울 인구가 천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사진=사진=shutterstock

많고, 45~49세(81만9,052명), 50~54세(80만7,718명) 순이었다.

연령별 인구 증감을 보면 0~4세 인구가 10.26% 감소한 반면, 85~89세 인구는 11.42% 증가해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자치구별 인구는 송파구(67만3,926명)가 가장 많고, 중구(13만4,635명)가 가장 적었다.

한국 올해도 식량 취약 국가에 쌀 원조

식량난을 겪고있는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한국 정부의 쌀 지원이 계속된다.

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전 세계 식량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에도 UN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시리아, 라오스 등 총 6개국에 5만톤 규모의 쌀을 원조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8년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하며 식량 원조 규모를 국제사회에 공약한 바 있다. 매년 쌀 5만 톤을 식량 취약 국가 난민 및 이주민에게 원조해 왔다.

올해는 기존 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4개국에 시리아, 라오스 2개국이 추가된다. 라오스는 동남아권 개도국 중 가장 빈곤한 나라라는 점에서, 시리



▲ 원조용 한국쌀이 우간다 난민정착지에 쌓여있다. 사진=농식품부

아는 지속된 내전으로 인구 절반이 기아상태에 놓여있는 점이 적극 고려됐다.

특히 올해는 식량위기가 커진 점을 반영해 전체 일정을 작년보다 1개월 정도 앞당긴다. 오는 6월부터 현지에서 수혜자들에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FAO(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WFP 등 15개 국제기관이 작성한 '2020년 글로벌 식량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계 식량부족 인구는 1.3억 명(2019년말)에서 2.7억 명(2020년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같은 글로벌 식량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식량원조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 농식품부의 지난 3년간 식량원조는 매년 300만명의 난민과 이주민이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www.myevergreenschool.com

“어버그린 프리스쿨입니다”

“아이들이 VISION을 꿈꾸는 학교”

588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714.670.9687